

I. 서론 -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문화주의의 중요성
II. 왜 상호문화주의인가?
III. 영, 프, 독일의 상호문화주의의 비교
상호문화주의 개념과 특성이 상이함
유럽의 대표적인 상호문화주의를 비교
1) 역사적 배경
2) 주요 주장
3) 특성
IV.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에 주는 시사점
V. 나가는 말

I. 서론 :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문화주의의 중요성

2차 대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이주민의 유입과 그에 관한 정책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이에 서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서구권이 처음 채택한 정책은 차별적 배제 정책이었다. 차별적 배제 정책이란 주류 문화에 이주민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적 활동 외에 분야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본래 속했던 사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정책적 모델이 요구되었다. 이에 많은 나라에서는 이들을 사회 주류 문화에 동화 시키는 동화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화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로서 이주민들을 인정하지만 주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게 되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이론적 생각들과 그것을 기초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을 크게 다문화주의라고 지칭한다.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나라간 이동이 활발해 지고, 국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추진해야 할 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 담론은 그 접근방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상이한 인식과 내용을 드러내고 있고, 접근법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책과 현상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다문화주의 담론이 한국 다문화 교육에 가장 적합한가는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떠한 인식을 가지느냐가 정책 특히 교육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과 목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다문화주의 담론은 크게 어떻게 나

누어지고, 접근법과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둘째, 이 인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그렇다면 어떤 접근 방식이 한국교육에서 가장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다문화 주의 담론을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담론에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개인의 자유가 보편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자신이 속할 문화를 선택할 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문화를 선택하고 가질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는 다양한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의 가치를 받아 들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할 문화적 공동체와 가치를 선택하고 확장할 자유를 지니게 된다.

자유주의적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하고, 소수 문화 공동체를 배려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접근법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문화주의를 실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가지기도 한다. 자유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소수 문화로 존재할 때, 가치의 대립 혹은 모순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담론에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담론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문화주의 담론이다. 비판이론은 억압에 축을 맞추고,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관행화와 작용을 분석할 때 유용한 이론이다. 비판이론은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해 줄 다양한 사회와 연대감을 갖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주류문화에 반하여, 반인종차별주의 교육과 비판적 인종이론처럼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구조적 분석과 제도에 있어서 불평등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MICHAEL VAVRUS는 비판적 다문화주의에서 핵심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고 환영하여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부정의와 인종차별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Stephen May, & Christine E. Sleeter, 2010: 19)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를 문제를 권력관계로 해석해서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의 억압으로 겪는 불평등을 밝히고, 이것을 교육시키고자 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에서는 소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했다는 것에 주목해서 그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화적 문제를 구조적 불평등과 연결시켜서 문화 간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모든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한계를 지닌다.

세 번째 담론에는 상호문화주의 담론이다. 상호문화주의는 상호문화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M. Abdallah-Pretceille 에 따르면 inter라는 의미를 최대한 고려한다면 상호작용, 교환, 장벽제거, 상호성 등의 연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가 가진 모든 가치를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개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라는 개념 속에서 참조하는 상징적 표상, 생활방식, 가치 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Maddalena De Carlop, 2011: 50) 초기 상호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의 단순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동화주의의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등에서 채택이 되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접촉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더욱더 정교화 되었다.

상호문화주의의 강조점에는 개인이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을 관계망 속에 놓인 개인으로

정의한다. 개인은 이 관계망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한다. 관계망 속에 놓은 개인은 다른 문화 특히 이질적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문화 간 차이를 인식 할 뿐 아니라 이 차이를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개인은 문화 간 대화의 주체로서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 간 차이를 변용시켜서 자기화 시켜 나간다. 이런 개인의 변화는 관계망을 통해서 확산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지게 된다.

문화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점이 강조되는데, 하나는 개인의 문화 이해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접촉이다. 간 문화성(문화 간 이해능력)을 가진 개인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간다. 문화 간 대화가 촉진되고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호문화주의는 그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을 받아 들이고, 이 도덕을 바탕으로 대화를 전개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전제를 그 바탕으로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보수 세력으로 부터는 동화주의와 다르게 주류 문화의 변화를 주장한다는 점에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 본질주의와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James A. Banks, 2011)

위의 세 가지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세 가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담론간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담론은 세계에 대한 인식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라는 가치가 보편적 가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이 가져야 할 인권이며 지켜지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의 확산을 위해서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세계를 구조적인 억압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세계를 바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구조적 억압을 인식시키고,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를 권력관계로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문화가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이 억압을 위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억압이 없는 평등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 개념은 문화를 보는 비교 혹은 상대적인 관점을 기초로 한다. 20세기 사회과학 패러다임 중 볼테르와 훔볼트는 문화, 종교 언어에 대한 비교 혹은 상대적인 관점을 허용하였다. 특히 타이러(Tyler)의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이론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식분야가 증가하였다. 철학, 문화인류학, 민족학, 언어학, 문학, 사회심리학, 상호문화 심리학, 교육과학은 상호문화 차원을 연구하였고, 상호문화 의사소통, 다언어 발달 그리고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모든 문화가 중요하며 동등하다는 인식론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는 동등한 문화 간의 존중과 소통 그리고 그로 인한 문화적 변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상호문화주의는 각 사회에서 협의된 도덕을 바탕으로 소수문화와 주류 문화는 동등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증진시켜서, 풍성한 문화적 변용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James A. Banks, 2011:120)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 세 가지 인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현실세계에서 동화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사상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 집단이 자유의 사상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소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경우 종교적 교리가 자유의 사상을 초월하고, 여성의 자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중받기 힘들다. 결국 자유의 사상과 종교적 교리가 충돌하게 되는데, 주류 담론은 이 때 종교적 교리를 무시하고 주류 사회의 사상 즉 자유의 사상에 동화되기를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동화주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문제를 지나치게 권력의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주류 문화를 지나치게 억압의 존재로 해석해 버릴 수 있게 한다. 사회를 이끌고 있는 주류 문화를 억압으로 소수 문화를 억압받는 존재로 해석을 하면 결국 평등을 위해서 소수 문화는 주류 문화를 적으로 상징할 수밖에 없으며, 두 문화 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흑인 문화와 국악(한국 문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란 문화 간 경계가 모호하고, 한 때는 소수문화였던 것이 주류 문화로 전환되기도 하고, 주류 문화였던 것이 소수 문화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러한 갈등은 무의미하다. 문화는 다른 사회적 요소와 달리 다양한 변화와 변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는 중간자적인 태도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다. 보수주의에서는 상호문화주의가 지나치게 소수 문화의 입장에 있으며, 주류 문화를 변화 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상호문화주의의 입장에 있으면, 소수 문화는 보호 될 수 없고, 진정한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개선 혹은 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상호문화주의가 억압적 구조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기 상호 문화주의는 실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게 만드는, 다소 낙관주의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았는데, 현재의 상호문화주의는 상호 교류라는 기본 틀 속에서 현실의 문제와 비판을 수용하면서 더 정교화 지면서 이런 비판의 형태들을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입장 중 한국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접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추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상호 문화 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를 보편사상으로 오랫동안 투쟁해 온 국가에서 적합한 이론이다. 한국사회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정하고 보편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역사가 매우 짧고, 아직까지 자유와 유교적 가치의 대립 속에 자유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 가치가 우선하는 다른 문화가 소수 문화로 들어오게 되면,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는 자유라는 이름의 동화주의 이거나 혹은 아노미 현상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사상과 지향점은 현재 한국 사회 혹은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며, 다문화문제를 구조적 문제와 결합시킴으로서 약자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문화 문제를 경제적 혹은 정치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결합시킴으로서, 보수주의자들의 잘못된 반감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프랑스의 극우 세력이 다문화 문제를 쟁점화 시키면서 공화주의자들을 약화 시키고, 프랑스의 우경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해오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식의 접근은 우익 세력을 결집 시키고, 소수 문화와 이민자 문제를 극단적 상황과 쟁점으로 몰고 가게 만들 수 있다. 1)

1) 마리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정치적 무관용, 반이슬람주의,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정책들로 성공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르몽드 지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비뇽, 포르바흐, 페르피냥에서 졌지만,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은 에낭보몽,

다문화 문제는 정치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결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일어났던 ‘악마의 시’ 사건²⁾에서 나타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갈등은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극단적 이슬람 주의와 자유라는 국가사상과의 갈등으로 해석해야 한다. 종교적 가치를 우선하는 소수 집단의 경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경제적, 정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이 사건에서 영국 진보주의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고, 다문화 문제는 다른 쟁점으로 넘어갔다. 이와 같이 다문화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다문화 문제를 다른 구조적 문제와 결합시키는 것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지나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호문화주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각 사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상적으로 진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적용에 많은 이점을 가진다.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도덕, 소통 그리고 소수문화의 가치를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유리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을 그 중심에 놓고, 간문화적 감수성³⁾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가진다. 실제로 프랑스 학자 은 상호 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차이의 중심에 실용성을 놓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교육을 토대로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용적 접근이며,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도대체 어떤 이론인가? 어떤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또 다른 다문화주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 논문의 목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동화주의 및 다른 다문화 주의와 비교해서 상호문화주의가 가지는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또한 상호 문화주의는 그 특성상 원리의 적용이 나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상호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⁴⁾을 대표하는 세 개의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상호문화주의의 어떤 특징이

베지에, 프레쥬 등 지역에서 지역단체장을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2) 88년 9월 인도 출신의 영국 소설가 살만 루시디는 ‘악마의 시’(Satanic Verse)라는 책을 출판했다. 무하마드와 코란을 풍자하는 이 책이 이슬람을 모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란의 이맘 호메이니는 89년 2월 누구든지 무슬림이라면 이슬람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라고 ‘파트와’(Fatwa, 알라의 이름으로 내린 명령)를 내렸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는 자에게는 이란의 ‘15호르닷’이라는 기구에서 15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주겠다고 공포했다. 그때부터 루시디는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이란과 외교관계를 끊었고 유럽공동체는 이란에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이슬람권 각국은 ‘악마의 시’를 금서로 공포했고 무슬림들은 영국과 파키스탄, 인도 등지에서 루시디를 성토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인도의 뭄바이에서는 경찰이 과격 시위대에 발포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파키스탄 내 영국도서관과 영국, 미국의 여러 서점에서 무슬림들에 의해 폭탄 테러가 자행되자 각국의 유명서점은 ‘악마의 시’를 진열장에서 제외 시켰다. 미국 뉴욕에서는 루시디에 대해 지지 사설을 게재한 신문사가 폭파됐고, 영국 런던에서는 루시디 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89년 6월 ‘파트와’를 내린 호메이니는 죽었지만 소요는 그치지 않았고 89년 9월에는 영국에서 그 책을 출판한 펄컨사 소유의 각 지역 서점에서 폭탄테러가 줄을 이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의 문인 160명은 루시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91년 7월 이탈리아에서 이 책을 번역한 에포레 카르리올로 씨는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일본에서 책을 번역한 이가라시 히토시 교수는 목이 잘려 피살된 사체로 발견되었다. 93년 7월 터키에서 책을 번역한 아지즈 네신 씨의 경우 투숙 호텔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경미한 화상만 입고 화염 속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이 불로 35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3)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 James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2003).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 and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을 참조.

4) 상호문화주의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와 출판물에 등장하기 시작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II. 왜 상호문화주의인가?

Castles와 Miller는 사회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크게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 그리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 차별적 배제 모델이란 이민자를 잠시 거주하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손님으로 간주하고, 정치·사회적 활동에 이민자들을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직업적 활동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동화모델은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인정하지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이전 문화의 특성을 버리고 그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 두 개의 모델은 이민자들을 사회적 타자로 간주하고, 이질적 문화가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모델로서, 이민자들에게 많은 불이익과 변화를 요구하는 모델이라고 하겠다. 전통적인 이민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유입되었던 이민자들은 차별적 배제 모델에서 간주한 것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동화 모델의 생각과 같이, 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데도 실패했다. 이로 인해 이민자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이 누적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다문화주의 모델이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소수그룹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이론을 이야기 한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크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론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공공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타자로 밀려있었던 다양한 소수그룹에게 적극적 배려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한다.

다문화주의는 그 내용과 방법 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분화되는데,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문제로 보고, 구조적 측면을 간과한 것을 비판하며, 사회 구조적 비판과 다문화주의적인 비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변용을 이루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상호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우리 사회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 생각이다. 많은 연구 논문들은 이 이론을 기반으로 다문화주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월 킴리카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다문화주의를 해석하고자 했던 다문화주의 이론이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진정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문화적 공동체에 모두 속해 있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이 속할 문화적 그룹을 선택할 자유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류 문화 외에 소수 그룹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

한다. Potas, M.(2005). *Report on integrating immigrants in Europe through schools and multilingual education*, Brussels, Belgium: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Culture and Education를 참조. European Commission은 2008년 문화 간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보급하고 실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코메니우스, 에라스무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문두스와 같은 교환 프로그램이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위해서 실시되었다.

야 하고, 동시에 개인이 문화적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는 문화적 소수 그룹의 특징을 공적영역에 드러낼 수 있게 하고 그들만의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물론 비인권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문화적 소수 그룹은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동들은 제지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문제를 제외한 소수 그룹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들의 독특한 특징은 유지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문화적 소수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대학 입학에 있어서 특례와 같은 교육적 배려와 혜택이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단 문화적 공동체는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고, 개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문화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적 공동체가 저지르는 도덕적 강제(여성인권과 같은)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소수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부족하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 있어서 공간적 분리를 허용해 줌으로서 문화적 소수 그룹의 게토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국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인 속박은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진 소수 그룹의 경제적 통제가 가능해 지게 됨으로서 동화주의나 다를 바 없는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는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서 문화적 소수 그룹의 문제를 문화에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문화 문제가 문화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조에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다문화주의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문제가 역사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구조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소수 그룹이 왜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된 위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사회 운동적 성격이 강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의 경우 모든 문화적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왜곡시켜서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론이 발생한 미국의 경우 소수 그룹의 문제가 오랜 역사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이민의 역사 속에서 단순한 문화적 갈등 일 수도 있는 사건들을 다른 갈등과 결합시킴으로서 구조적 문제로 문제를 왜곡시키고, 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맹점을 지닌다.

이 두 가지 다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지닌다. 이들의 이론은 다양한 소수 그룹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축소시킨다. 다문화주의자들 또한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심, 배려심, 도덕심과 같은 가치는 이민국가가 아닌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와 공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 가치가 축소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애국심과 사회의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이다. 소수 그룹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축소시키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애국심과 같은 가치를 버리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지향점과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소수 그룹의 강조는 자칫하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축소하고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로, 소수 그룹을 문화적으로 분류하고 문화가 마치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

다. 그런 방식의 인식은 문화가 가진 동적인 특징을 왜곡시키고, 문화 변혁의 주체로서 개인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개인이 속한 소수 그룹의 가치만을 더 강조할 위험이 있다. 소수 그룹에 속한 개인은 문화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속한 소수 그룹의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하는 문화적 선택들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던지 개인은 문화적인 가치들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권리를 지닌다. 소수 그룹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고 개인이 가진 문화적 권리를 축소시킬 위험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다문화주의는 한국과 같이 국가 자체가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고, 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애국심 및 도덕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소수 그룹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 개개인의 선택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정체성과 다양한 문화 구성원 즉 이민자 집단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성 면에서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와 비교하여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공동체를 고정된 실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정치적, 공간적 위치를 허락해줌으로서 그들만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다. 문화를 고정된 실체로 이해한다면, 이런 다문화주의 정책은 옳은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문화 공동체 속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문화를 창조하면서 문화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에 주목하면, 오히려 문화적 분리는 더 큰 괴리감과 이질성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문화를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지 않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문화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관계망을 통해서 형성한 것이고,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집단에게 정치적, 공간적 위치를 허락해 주기보다,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많이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리틀 이태리와 같이 문화적 소수그룹이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어 살 수 있게 하는 공간적 위치가 허락된다. 문화적 소수그룹은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주류 문화와 분리된 채로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를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상호문화도시를 기획해서, 도시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주하게 하고,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호문화도시는 다문화주의 국가의 문화적 소수 그룹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이 계도화 되는 것을 막고, 서로간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문화 간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지역이 급격하게 조성되어서 어느 한 지역이 계도화 되는 것을 염려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해준다.

둘째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정책은 문화적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고, 문화별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차이의 변용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 간 이해의 영역을 더 높일 수 있다. 물론 상호문화주의에서 개인의

문화 간 이해가 어디까지 가능하지, 문화 간 왜곡된 변용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상호문화주의는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타자를 배제시키기보다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다문화주의 보다 더 의의를 지닌다.

다문화 교육이 왜 차이를 강조하고 그로 인해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의 음식문화를 가르친다고 가정한다면, 다문화 주의는 동양의 음식문화, 서양의 음식 문화, 그리고 더 깊게는 동양에서는 한국의 음식문화, 중국의 음식문화, 일본의 음식문화와 같이 유사한 문화별로 카테고리화 나누고, 문화 별로 음식문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가르친다. 그 경우 문화별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식의 문화별 차이를 고정관념으로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호문화주의 교육에서는 문화별 차이를 분류해서 카테고리화 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용의 사례를 제시한다. 음식의 예를 생각해 보면, 국수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나라별로 국수가 어떻게 다른지, 왜 이렇게 국수 문화가 변화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인 국수가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토론하고, 국수를 요리한다면 어떻게 요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이와 같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 왜 이 차이점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런 식의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은 문화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 교육에 적합한 이론이라 하겠다.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차이를 강조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이론은 국가 정체성이 강한 한국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가 그 가운데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과 타협, 그리고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낸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보다 더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상호문화주의는 소수 문화의 계토화를 막고,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가능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태생적으로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본 방침 이외에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라별 특징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럽의 모든 국가를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상호문화주의를 비교함으로써 상호문화주의가 어떤 이론인지 그리고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밝혀 보도록 하겠다.

III.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호문화주의의 비교

상호문화주의는 이민을 지향하지 않던 유럽의 각 국가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유입된 이주민들이 사회에 융합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서 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이론이다. 기본적 원칙에 있어서는 나라 별로 유사성을 보이지만 각 국가의 역사 사회적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접근과 해결 방법,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상호문화주의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1. 영국

1) 역사적 배경

2차 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민자들을 주류 문화에 흡수시키고자 하는 동화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이전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동화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 사회 속에서 동화 정책은 실패하였고, 많은 이주민들은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사회에 부적응 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1960년대 이후 영국 정부는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민을 반대했던 보수당 우파는 다민족 다문화 정책이 영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극명하게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보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다문화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는 기회의 평등과 좋은 인종관계(good race relations)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특히 인종평등위원회에서는 나이, 장애, 젠더, 인종, 종교, 임신과 어머니, 결혼과 시민 파트너십, 성적성향, 성전환이라는 9가지 분야에서 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영국의 다문화 정책은 1976년 인종 관련법을 그 시작으로 본다. 그 이후 영국은 통합 정책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서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과 동시에 이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인종 관련법은 인종 차별에 대한 강한 대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더욱더 강화 되어 왔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2006년 시행된 평등법을 들 수 있는데, 이후 인권법과 평등법등을 계속해서 제정하면서 인종에 관한 차별을 반대하는 법들을 정비해 왔다. 특히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가이드 페이지나 혹은 '종교, 또는 신념 그리고 직장(Religion or Belief in Workplace)'를 '자문, 화해, 중재, 서비스(ACAS: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에서 제공함으로써 평등을 증진하고 있다. 5)

그러나 이런 영국 정부의 노력들은 2006년 런던에서 일어난 연쇄 폭탄 테러가 이주민들의 자녀들 즉 이민 2세대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대두되었다. (한건수, 2010; 김태원, 2012; Richard Race, 2015)

2) 주요 주장

영국의 중요한 상호문화주의 모델은 상호문화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정책 보고서는 Cantle 보고서와 2007년 “우리의 공유된 미래(Our shared Future)” 들 수 있다. Cantle 보고서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빈번한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동체의 융화 증진, 접촉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다양한 문화들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해서 부유하고 다양한 영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통합 융화 위원회(Com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d 의해 발표된 “우리의 공유된 미래(Our shared Future)”는 영국에서의 상호문화주의의 비전과 분석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에 참여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는 파레크(Bhikhu Parekh), 길로이(Paul Gilroy), 브라(Avtar Brah), 센(Amartya

5) http://www.acas.org.uk/media/pdf/f/l/religion_1.pdf

Sen) 그리고 휴스톤 (Miles Hewstone)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 파레크는 상호적 다문화주의라는 용어하에 상호문화주의를 정교화하여 영국의 상호문화주의를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레크의 상호문화주의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Richard Race, 2015; 김태원, 2012)

파레크는 다문화사회를 분석하여, 다문화사회를 이해할 때 다원주의(pluralism)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상호문화적 다문화주의(interative multiculturalism)이라고 지칭한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를 병렬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문화주의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병렬적인 다문화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가 공동체와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열고, 타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파레크는 이 이론의 근거를 “인류의 문화적 피구속성, 다양한 문화와 상호문화적 대화의 피할 수 없음(inescapability)과 서로 다른 문화의 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생활을 분리해서 이해했고, 지역 사회의 독자성이 고정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한 이중성과 유동성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립된 공간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회에 대한 개방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 동력으로 열리는 것이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파레크는 문화를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문화란 일상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인간 사회의 특성들이 얽혀 있어서 통합적 요인뿐만 아니라 갈등적 요인들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파레크의 주장에 따르면, 영토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성립되고, 그 공동체를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면, 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연방의 국가를 수립하며, 그 공동체 간의 상호 교류 및 대화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소수 집단에게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또한 사회적 화합, 문화적 다원성, 공동의 목표를 성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면 소수 문화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파레크는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파레크는 상호적 다문화주의를 국가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파레크는 국가의 중요성을 옹호하며, 길로이(Gilroy)가 세계주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국가기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주민들은 영국에 와서 살기로 결정한 이상, 우선은 영국 내에 투영되어 있는 특정한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때 가치는 광범위하게 이해되는 개념으로서 자유에 대한 공감, 인권 그리고 평등을 지칭한다. 파레크에게 가치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레크는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김태원, 2012; 김남국, 2005; 김남국, 2006)

3) 특성

영국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속에서 상호문화주의가 발달해 왔다. 영국에서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발달한 정책들은 평등이라는 개념과 결합해서 발달했고, 사상들은 자유의 가치 속에서 발달되어 왔다.

6)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상호문화주의라는 용어를 공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파레크는 상호적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로 그의 이론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영국의 상호문화주의 정책의 발달은 평등의 개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1976년 인종 관련법은 인종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2000년부터 시작된 인종 관련법 또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평등법 또한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이주민 정책은 평등이라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상은 자유를 바탕으로 전개 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인 파레크는 상호문화주의의 필요성, 즉 타자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고, 외부에 의해서 억지로 개방되기 보다는 스스로의 자유적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온당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즉, 독립된 자신들 만의 세계가 중요하지만, 사회의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외부와의 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브라와 같은 학자는 이주공간의 형성을 피동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센과 같은 학자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정형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문화적 범주화를 폭력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센은 정체성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서 자유와 선택,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영국 학자들 대부분의 사상은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국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문화 간 대화가 촉진되고, 이주공간을 형성하며, 자유와 선택, 민주적 시민성과 같은 기본 가치들을 통해서 이주민 갈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해보자면, 영국의 상호문화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 속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를 통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까닭은 영국이 지켜온 민주적 가치 속에서 찾고,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상호문화주의를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논리를 견고화 하고 있다.

2. 프랑스

1) 역사적 배경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동질적 특성을 차이보다 강조하는 사상을 발전시켜왔다. 그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차이로 인해서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평민이 나뉘어 졌고, 그로 인해서 귀족과 성직자에게 특권이 주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은 모두 같은 존재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공화국의 기본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인정하였으며, 시민은 사적영역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이민자들 또한 사적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공화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동화주의 정책은 비난을 당하게 된다. 일부 교육관련 인사들 특히 포르(Edgar Faure)와 같은 인물들이 동화 주의 교육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1972년 '살아가기를 배우기(Apprendre à être)'라는 연구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신식민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70년대 세계 경제가 불안해 지면서 프랑스에 이주한 이주민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이미 들어온 외국인을 '안정화(stabilisation)' 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상호문화활동(activités interculturelles)’이다. 상호 문화 활동의 목표는 이민자녀들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프랑스 학교에 잘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호문화활동의 중심에는 교육이 위치하게 된다. 1978년 7월 25 일 교육부 공문에서부터 상호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므니에(Olivier Meunier)는 프랑스 교육부가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유럽회의가 학교에서 상호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정체성을 상호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권면하고 있으며, 이민노동자의 귀국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들이 프랑스에 정착하고 있고, 출신 언어와 문화교육을 이민자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민자 자녀들의 소외와 고립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상호문화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이전의 상호문화교육은 이민자녀들을 초점으로 다루어 졌다면, 80년대 이후 상호문화교육은 유럽의 건설, 국제 교역의 증가, 지역과 세계 직업 문화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981년부터 프랑스는 학교를 단체나 외부인에게 개방하면서, 상호문화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우선지원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소수문화의 표 또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은 공화국의 이상을 지키고자 했던 프랑스의 문화에 다른 문화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다양성이 프랑스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1985년 베르크(Jacques Berque) 보고서는 교육과정을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의 변화는 1989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고, 히잡 사건⁷⁾이 발생하면서 다시 공화국 중심의 모형으로 돌아서게 된다. 프랑스 교육부는 공화국으로서 교육을 다시 주장하고 중앙집권적 조치들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특수성은 다시 고려되지 않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민학생들의 출신이나,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 역사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93년 이후로 국민단일성과 공통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6천만명에서 1천 4백만명은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프랑스 국민이며,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게다가 유럽통합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다양성은 확대되고 있다. 상호문화교육은 공적으로 공문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민자교육을 넘어서서 시민성교육(éducation à la citoyenneté)으로 확대 되었고, 이 교육에 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경수, 2011; 김휘택, 2010; 장한업 2009)

2) 주요주장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이민자 교육을 맡은 교육학자들과 교사들의 실천적인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이민자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상호문화적인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1999년 프랑스 PUF사에서 출간한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Martine Abdallah-Pretceille) 교수의 상호문화주의교육 L'éducation interculturelle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자는 Paris VIII 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상호문화교육을 연구하고 많은 저서와 논문을 쓴 권위 있는 학자이다.

7) 1989년 히잡 쓴 여중생 세 명이 수업시간에 조차 히잡을 벗으려 하지 않는다 하여 퇴학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후 프랑스 내에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일부 무슬림 여학생들의 특정 수업거부 사건과 맞물려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는 다문화주의를 영미권의 다문화주의의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영미권의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며, 다양한 문화의 인정을 강조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한 사회에 어떻게 녹여 낼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며, 교육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이민자녀교육, 외국어교육, 학교교류, 그리고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소속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차이를 공간화하며,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수하고 정교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상대주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차이점을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다문화주의는 거부와 배제의 행동을 조장하고 개인을 집단에 예속시켜서 사회적인 유동성을 제한하고 집단과 문화가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은폐하고 문화적 변인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종속과 무책임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는 소속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고 차이보다 이질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서술 보다 개인과 개인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중시하고, 타인의 문화가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울 것을 권장한다. 이런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교육을 통해서 상호문화주의적인 접근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다른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거나,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 주고 받는 관계이며,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 다문화주의 또한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서 이민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수자 그룹에 대한 배려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단지, 정체적 방향과 성격들이 만든 부분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보완이 요청되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다는 보완적인 개념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른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접근한다. 다문화주의가 집단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집단의 정체성을 우위에 놓고, 집단 내부의 내적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이런 집단적 차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리적 공간을 구분하는데 이로 인해 고립된 형태의 소수자 밀집지역을 만들고 이 지역은 빈민화 되고 사회적 배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집단별로 고정된 이미지 (stereo type)가 구성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더 개선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고정된 이미지(stereo type)으로 인해서 집단의 사회적 유동성은 무시되게 되고,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 버리게 된다.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이런 한계점에 보완책을 제공해 준다. 상호문화적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이며, 그의 문화는 아니다. 결국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의 다원적 특성들을 인정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인정하는 방식을 상호문화주의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적인 접근 방식은 개인이나 문화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연결된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문화간 관계는 쌍방향성을 지향한다. 소수의 이주민 뿐 아니라 다수 그룹의 사람 역시 소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상호문화주의의 관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다원성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이다. 한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상호문화교육이다. 유럽은 상호문화교육을 통해서 상

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간 화합과 응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회적 포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문화주의는 영미의 다문화교육에 비해서 모호한 측면이 다분하다. 그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의미의 모호함이 구름 속에 싸여(장한업 역, 2010:105)”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그가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풀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상호문화교육은 개념과 이론이 먼저 선행하고, 실제로서 적용의 문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민자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호문화주의는 특정한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까하는 실제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상호문화주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학문들에서부터 다양한 이론들을 차용하였으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비해 나갔다. 이론의 정비 과정은 나라마다 그 현실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개념성은 모호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와 역할과 그리고 적용 범위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상호문화교육은 이론화 과정에서 철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들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했기 때문에 그 모호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직 상호문화주의는 그 개념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한 교육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지향점”을 찾는 새로운 시각이며 “사회응집력과 평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그 실용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달레나 드 카를로와 같은 이들은 “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용적인 선택”(Maddalena De Carlo, 1998: 40)으로서 상호문화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상호문화주의가 다른 다문화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독특성을 갖는지 개념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연구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상호문화주의는 명확한 틀이 구성되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적인 학문이며,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달해 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칙, 도덕적 기반 위해 소통하게 하고, 개인이 변화의 주제로, 소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수용하고, 변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는 이론이 정교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프렛세이가 지적했듯이 각 나라마다 현실에 맞게 변화 가능한 다문화 사회에 맞는 실용적인 이론이기도 하다. (Abdallah-Pretceille, Martine, 2005; 홍종렬, 2011)

3) 특성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공화국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발달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 간의 연대와 동질성이었다. 혁명 이전 시기에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던 이들이 귀족과 성직자와 같이 특권층을 형성하면서, 더 많은 권리를 누려왔기 때문에 혁명이후의 프랑스 정부는 인종과 상관없이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왔고, 프랑스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

접을 두어 왔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은 동화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공공영역에서만은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다른 국민과 같은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고 그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감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프랑스의 모습은 히잡 논쟁을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온 학생들을 퇴학 시켰던 학교의 조치는 공공영역에서 종교 혹은 인종적 특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프랑스의 전통적 생각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러나 동질성의 강조하던 프랑스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이주민들은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것은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미테랑 이후의 이주민 정책들은 그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왔지만, 관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참아주고 관용을 베푸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주민들과 프랑스 주류 문화를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민 2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서 파리 외곽 소요와 같은 사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 졌다. 상호문화주의를 주도한 것은 교육학자들인데, 이들은 프랑스 교육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타자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이민 2세대들을 보면서 그들을 교육과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호문화주의를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자기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문화를 프랑스 문화와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의 시작점이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관용에서 나아가 타자의 문화와 상호 소통하는 것이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동등한 위치의 문화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들 간의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 상호 소통을 위해서 인접이론들(철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의 생각을 차용한다. 예를 들어, 철학에서는 자아의 인식, 즉 타자를 통해서만이 자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론을, 사회학에서는 이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이주 당시 겪게 되는 사회적 갈등을 인류학에서는 문화적인 차이점을, 심리학에서는 타자로서의 심리를, 언어학에서는 상호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언어적 특성들(랑그 혹은 상징 언어 등)을 차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면서도 여전히 그 대화의 기반에는 사회가 동의하는 도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모두가 동의하는 대화의 방식 혹은 사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공화국의 가치 또한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독일

1) 역사적 배경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의 역사는 경제부흥과정이 시작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 독일 정부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독일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든 1973년 까지 외국인 노동력이 독일에 유입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독려했지만, 독일을 이민국가로서 정의하지 않고,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독일은 이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정기 '교체(Rotation)' '귀환'(Rückkehr) 정책에 따라서 일정한 계약기간이 끝

나면 예외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독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 중 약 20% 만이 독일에 머물렀다. 독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했던 노동자들과 숙련공들을 계속 채용하려는 사용자의 요구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기간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가족을 불러들였고, 외국인 유입은 증가했다. 결국 독일은 2005년 새로운 이주법이 시작될 때까지 송환정책에서 상호문화정책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과정을 맞게 되었다.

초창기 이민자 자녀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존재가 등장한 연구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시작되는데, 외국인 교육학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인 학생들은 독일어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그로 인해 결핍된 아이들로 치부되었다. 독일의 교육부장 회의(KMK)는 1971년 11월 3일 독일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를 결정하였고, '준비반'(Vorbereitungsklasse)이 생겨났다. 동시에 정규 학급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을 2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학급에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 당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준비반'에서는 독일어와 최소한의 핵심과목들을 지도학 되었고 그로 인한 교수법이 등장하였다. 동시에, 외국인 학생들과 독일 학생들을 함께 교육시키기 위한 외국인 학생들의 결핍 보충을 위한 '외국인 교육학'이 성립되었다. 외국인 교육학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정체성 유지와 동시에 독일사회의 통합을 위한 교육, 이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하면서 자가 당착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그리고 이 외국인 교육학은 정치 문제의 교육 문제화, 결핍가설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부터 차이가설이 나오게 된다. 그것은 외국인 학생들을 결핍 대상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독일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이라는 것이 대두되었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은 외국인 교육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사실과 다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외국인들을 손님이 아니라 이웃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초창기의 상호문화교육은 "평화교육과 ... 공동체교육"과 결합되었다. 이 결합을 통해서 상호문화교육은 편견의 감소, 공감능력, 연성, 민족주의사과의 탈피, 갈등 대처 등의 평화 교육의 목표를 수용하였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만남의 교육학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문화들간의 상호이해와 편견은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가진 상호문화교육학자들은 내국인들과 이주민들의 교류에 힘을 쏟았고, 만남을 통해서 여러 문화가 어울려지는 일들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만남의 교육학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만남에 수반되는 갈등에 주목하였다. 갈등의 교육학은 만남 자체 보다 외국인 차별과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인종 중심주의나 편견의 제거, 기회균등과 같은 것에 주목하였다. 반차별교육학은 문화 귀속성이 교육과 도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가정을 비판하고, 문화와 인종의 차이가 허구라고 간주한다.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허구의 문화 범주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조직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며, 차별이 나타날 경우 이것을 사회문제화 하려고 한다.

독일은 상호문화교육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갈등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지나치게 협소화 시킨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상호문화교육은 타자들을 인종 차이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하게 함으로서 문제들을 고찰하게 하고, 주류문화와 소수 문화가 서로 어울리는 지점을 찾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은 타자의 문제에서

문화 차이에 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관해서는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의 교육학과 반차별 교육학의 요구를 비판으로 수용하면서 발달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게 타자의 문제가 갖는 상호 문화 차원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정의의 문제를 통합해 들일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김상무, 2010; 김상무, 2011)

2) 주요주장

독일은 상호문화주의 학회를 중심으로 상호문화주의 이론이 견고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인 말(Mall)은 해석학을 중심으로 상호문화해석학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그의 이론을 정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말의 상호문화해석학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접하고, 이동하고, 만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이질적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 당연한 사실은 몇 가지 의문을 가져 오는데, 문화가 무엇이며, 이질성(heterogeneity)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이질성에 무게를 두면 동질성(homogeneity)가 규범으로 간주되어 보여서, 이것 자체가 비판될 수 있다. 세계가 점점 만남의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사람 가치를 살고 있다면, 이질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생긴다. 문화와 이질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과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화 이질성(cultural heterogeneity)”에 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Interkulturalität und kulturelle Diversität*. 책이다. 이 책에서는 상호문화성과 문화 다양성을 이질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 즉, 상호성과 다양성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성에 초점을 맞추느냐,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상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이질성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는 것을 뜻하게 되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과 문화다양성을 가진 사회의 상호작용, 상황, 맥락들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경우, 문화 이질성의 상호작용 특징, 모호성, 복수성(multi-perspectivity)등을 바르게 인식하려고 노력해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논의의 본질로 돌아가서, 독일 철학자 말은 이 이질성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 상호문화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말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램 A. 말(Ram A. Mall)은 의견충돌에도 불구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종류의 차이를 완전히 지양할 수 없다는 테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말은 상호문화성, 문화 간 오리엔테이션(intercultural orientation)과 문화 간 소통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에 집중해 고찰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말은 자이나교(Jainism) 철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단순히 한쪽에서 주도권을 갖는 요구를 넘어서서, 상존하는 문화 간 갈등과 차이를 평화적으로 열린 자세로 대처하는 선구 방안을 제안한다.

이런 말(Mall)의 상호문화철학의 기획은 ‘상호문화적 비교철학’내지 ‘상호문화적 해석학’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는 해석학의 모델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차이를 가진 두 문화는 서로 간 소통이 매우 어려운데, 이 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다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동일성의 모델이고, 둘째는 차이의 모델, 마지막은 유비적 모델이다. 동일성의 모델이

란 자신의 전통을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삼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동일성의 모델에서는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타자의 고유성을 말살하고자 하며, 타자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이해를 확장하려고 한다. 식민지적 개념이 동일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서양인들은 자기 문명을 기준으로 다른 세계의 문명을 해석하고, 그런 해석을 기초로 다른 문명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타 문명에 대한 왜곡과 폭력을 낳았고, 타 문명에 자기 문명의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두 번째 해석학인 전적인 '차이의 모델'은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절대시하는 해석이다. 차이의 모델은 문화 간에는 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로 간의 이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공존만이 가능하다. 차이의 모델은 상호성을 가지기 힘들지만 타자가 타자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성 모델'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호관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말은 세 번째 해석인 오직 '유비적 모델'의 해석학만이 타자의 타자성이 무시되거나 환원되지 않고 이해에 도달하는 상호문화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호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문화들 사이에는 중첩(겹침, Überlappung)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문화는 완전한 차이의 영역도 있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중첩된 부분에서는 서로 간의 해석이 가능하다.

문화들 사이의 중첩개념 즉 겹침의 개념은 전적으로 차이만 보게 하거나, 혹은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다른 문화를 보는 전적인 동일성의 개념이 아니다. 중첩이란 문화 간에는 차이와 유사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차이의 영역에서는 서로 간에 이해와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중첩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 지게 된다. 이 영역에서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문화 간 중첩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말은 이 중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도 논리학과 서양 논리학의 예를 든다. 인도 논리학과 서양 논리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논리학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지만, 맥락과 문화 전통의 구체적 사례와 상위 개념 즉 논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드러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서양 논리학과 인도 논리학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론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추론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겹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완전한 차이를 가지기도 한다. 인도 논리학은 경험에 기반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추론한다. 반대로 서양 논리학은 형식적 타당성에 의해서 기반한 연역적 방식으로 추론한다. 논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중첩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지만, 이 다른 방식의 추론 과정에서는 서로 판단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다. 즉, 서양 논리학은 형식적 타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도 논리학은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귀납적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뿐, 서로간에 비판을 가하거나 변형을 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한 차이의 영역에서는 한 가지 눈으로 다른 편을 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남겨 두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의 상호문화적 해석학은 한 편의 관심으로 다른 편의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중첩에 영역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범주라는 것을 받아 들이지만, 다른 편의 타자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자 한다. 오히려 중첩의 영역, 즉 논리학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경험 중심의 귀납적 방식의 인도 논리학과, 형식적 타당성의 서양 논리학으로 구성함으로써 논리학의 보편적 인식을 확장해 나간다. 이와 같은 유비적 해석을 통해 말은 이질적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여지를 살려 두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호성과 다양성이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최진

3) 특성

독일의 이주민 정책은 독일이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정책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의 정기 '교체(Rotation)' '귀환'(Rückkehr)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독일은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손님 노동자라는 그들의 언어는 그들이 이주민들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해 주는 단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그들의 교육은 이주민들이 그들 고향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교육과 독일어 및 독일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인해서 독일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겪게 되어서 손님에서 결핍자로 차이를 가진 동등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존재로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변화되면서 상호문화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상호문화주의는 나치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나치로 인해 2차 대전을 시작했고, 유대인 및 약자들을 철저하게 짓밟은 역사를 가진 독일인들은 이주민 문제가 과거 유대인 학살과 같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교육을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상호문화주의 사상과 평화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결합하는 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주민을 보는 불편한 시각이 자라게 되고, 이것을 막는 것은 전쟁 이후 해온 평화 교육과 공동체 교육만큼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만남의 교육학과 갈등의 교육학 반차별 교육학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사상적으로 독일은 해석학적 전통 속에 상호문화주의적인 해석학을 발전시켜서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비를 해왔다.

IV.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에 주는 시사점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는 영미권의 다문화주의와 달리 다양한 문화 공동체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 공동체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유럽 국가들은 이민국가인 캐나다나 미국과 달리 이주민의 수용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초창기부터 그들이 택했던 동화주의적인 다문화주의는 테러와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이 택한 다문화주의 정책들은 단순히 이민자들이 사회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도였고, 현실적으로 그들의 정책은 동화주의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이민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었고,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다문화 주의는 이민 2세대에 의한 런던테러, 파리 교외 폭동과 같은 큰 난관을 마주치게 되었다.

초기 유럽의 이런 상황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 또한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그룹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이민국가와 달리 한국은 유럽과 유사하게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상호문화주의는 그러한 점에서 유럽과 유사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관계망 속의 개인을 강조하며, 그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지닌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이 타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아를 넘어서서 유비적 해석해 나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결국 자아와 사회는 자신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자문화주의자들의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이기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왜곡의 가능성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상황에서 노출된 갈등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은 파레크의 지적처럼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갈등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보다, 내부적 의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상호문화주의 이론을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에 반하지 않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이론들을 정교화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상호문화주의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 또한 유럽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호문화주의 이론을 발달시켜나가고 그것을 기초를 연구해 나간다면 한국식 상호문화주의 교육이 다문화주의가 가진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정립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문제는 이제 몇 명의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다문화 문제를 단순히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적 배제 방식이나 동화주의적인 방식을 택해서, 소수 문화를 무시하고, 이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이민국가가 아니었던 유럽의 이민자 2세대들의 분노와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큰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문제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정치 사회적 문제 혹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결합하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문화 자체가 가지는 속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사회를 보는 다양한 접근법 중 상호문화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각 사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상적으로 진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적용에 많은 이점을 가진다. 상호문화 주의적 접근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도덕, 소통 그리고 소수문화의 가치를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유리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을 그 중심에 놓고, 간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가진다. 상호문화주의는 교육을 토대로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용적 접근이며,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렇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도대체 어떤 이론인가? 어떤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또 다른 다문화주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 본 논문의 목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동화주의 및 다른 다문화 주의와 비교해서 상호문화주의가 가지는 특징을 기술하고, 유럽을 대표하는 세 개의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상호문화주의의 어떤 특징이 가지는지 드러내곤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상호문화주의는 교육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하고, 교육

을 통해 간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게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상호문화주의는 같은 원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적용이 상이하며, 이론적 적합성과 체계성이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또한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상호문화주의적인 접근을 연구하고 완성해 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리고 그 연구의 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교육 정책과 실행을 기획해나가고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국 (2005). 심의 다문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1), 87-107
- 김남국 (2006). 문화와 정의: 배리 대 파레크. 국제평화 3(2). 400-407.
- 김상무 (2010).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정책이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상연구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4(3). 65-89.
- 김상무 (2011). 독일 상호문화교육학 논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5(3). 37-5.
- 김휘택 (2010). 프랑스 사회와 다문화 교육 - 문화 간 교육에서 다문화 시민교육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70, 163-182.
-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3.
- 주광순, 박종식, 김정현 (역). (2010). 상호문화철학의 논리와 실천. 김정현(편) Claudia Bickmann & R.A.Mall 외의 글을 엮음. 서울: 도서출판 시와 진실.
- 육주원, 신지원 (2012).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EU연구 31. 111-139.
-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Marco Martiniello의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산호, 김휘택 (역) (2012).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Patrick SAVIDAN의 *Le Multiculturalisme*. 서울: 도서출판 경진.
- 이기동 (역) (2014). 사회과학의 철학. Ted Benton and Ian Craib의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경수 (2011). 프랑스 다문화교육 정책 무엇이 강점인가?- 우리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5, 751-776.
- 장한업 (2009)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상호문화교육. 불어불문학연구, 79. 633-656
- 장한업 (역) (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Abdallah-Pretceille, Martine 의 *Éducation interculturelle*. 서울: 도서출판 한울.
- 한건수 (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 113-143.
- 장한업 (역) (2011). 상호문화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Maddalena De Carlo의 *L'interculturel*.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최진철 (2013).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로: 문화 간 교류와 혼종의 시대 문화다양성 대처를 위한 유럽적 대안 찾기. *국제평화* 6 (2). 195 - 211.
- 홍종열 (2011).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글로벌문화콘텐츠* 7. 314-317.
- Abdallah-Pretceille, Martine. (2005). *Éducation interculturel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Alois Moosmüller and Jana Möller-Kiero. (eds.).(2014) *Interkulturalität und kulturelle Diversität*. Waxmann Verlag GmbH Munster.
- Carl A. Grant, & Christine E. Sleeter. (2011). *Do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chievement and Equ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Inc., part of Taylor & Francis Group LLC.
- James A. Banks. (Eds.).(2011).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Inc., part of Taylor & Francis Group LLC.

- James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2003).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 and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Michael Dunne and Tiziano Bonazzi (Ed.).(1995). *Citizenship and Righ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affordshire: Keele university press.
- Richard Race.(2015).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New York and London: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Ltd.
- Stephen May,&Christine E.Sleeter.(Eds.).(2010). *Critical Multiculturalism Theory and Praxi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Inc., part of Taylor & Francis Group LLC.
- Will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 Kymlicka (2007). *Multicultural Odysseys: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